



겨울 낭만, 애프터눈 티.

크리스마스 마켓 향하기 전, 애프터눈 티

로컬 티 레이블 사용해

스위스에서만 체험 가능한 애프터눈 티 메뉴

디저트 하면, 또 스위스지

섬세히 다뤄 더욱 고급스러운 맛

인스타그램어블한 사진 보장까지

영국 전통이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대단한 인기다. 바로, 티타임이다. 특히 분주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우중충한 가을과 겨울 날씨에 애프터눈 티는 즐거운 외출이 되어준다. 클로티드 크림을 얹은 스콘, 샌드위치, 페이스트리가 3단 트레이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티 셀렉션이 마련되어 있다. 편안히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기 전, 낭만적인 오후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되어준다.

1. 그랜드 호텔 레 트루아 루아(Grand Hotel Les Trois Rois), 바젤(Basel)

정통 영국식 티타임이 한상 차려지는 곳이다. 애프터눈 티 메뉴인 “디럭스”나 “로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스콘과 샌드위치, 디저트가 훌륭하다. 루체른에 있는 티 하우스 “라르 뒤 테(L'art du thé)” 레이블의 다양한 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4:30부터 6:30 사이에 그랜드호텔 레 트루아 루아(Grand Hotel Les trois Rois)의 로비에서 애프터눈 티가 운영된다.

2. 라인 강 티타임(Tea Time uff em Rhy), 바젤(Basel)

라인 강의 배 위에서 달콤 짭짤한 페이스트리, 스콘을 품질 좋은 로컬 티 레이블 셀렉션에 곁들일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바젤의 도심 풍경이 서서히 지나간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티타임이 있을까?

3. 호텔 보르 오 락(Hotel Baur au Lac), 취리히(Zurich)

반호프슈트라세(Bahnhofstrasse)에서 잠시 벗어나 몇 시간 동안 분주한 일상을 잊을 수 있는 곳이다. 르 올(Le Hall)의 아름다운 분위기, 품격 있는 티 블렌드, 샌드위치, 영국산 오리지널 클로티드 크림을 얹은 홈메이드 스콘이 격조 있는 시간을 선사해 준다. 이보다 더 정통적일 수는 없다.

4. 돌더 그랜드 호텔(Dolder Grand Hotel), 취리히(Zurich)

돌더 그랜드 호텔(Dolder Grand Hotel)의 여러 라이브러리 중 하나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다과 크리에이션이 접시에 장식되고, 티가 준비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45 까지 이용할 수 있다.

5. 파크 하얏트 호텔(Park Hyatt Hotel), 취리히(Zurich)

마리아주 프레르(Mariage Frères)의 티가 호텔의 파티시에의 손길을 거친 달콤 짭짤한 다과와 함께 준비된다.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파크 하얏트 취리히(Park Hyatt Hotel)의 애프터눈 티다. 아름다운 로비의 벽난로 앞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단, 최소 24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6. 호텔 빅토리아 융프라우(Hotel Victoria Jungfrau), 인터라켄(Interlaken)



빅토리아-융프라우(Victoria Jungfrau) 호텔의 테라스 식당에서도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샌드위치, 스콘, 달콤한 디저트가 3 단 접시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융프라우의 웅장한 뷰가 럭셔리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7. 뷔르겐슈톡 리조트(Bürgenstock Hotels and Resort), 옵뷔르겐(Obbürgen)

뷔르겐슈톡(Bürgenstock)의 시그니처 하이티로 디저트와 짹짹한 다과를 엄선한 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살롱(Salon) 1903 이나 레이크 뷰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데, 루체른 호수의 환상적인 뷰가 아름답다.

8. 호텔 벨뷰 팔라스(Hotel Bellevue Palace), 베른(Bern)

벨뷰 팔라스(Bellevue Palace)에서는 뷔띠푸르, 다과류, 달콤 짹짹한 별미가 3 단 접시를 장식한다. 차노유(Chanoyu) 티 하우스의 티가 함께 제공된다. 귀족풍 티타임을 원한다면, 프로세코나 샴페인을 곁들여 봐도 좋다.

9. 호텔 당글르테르(Hotel d'Angleterre), 제네바(Geneva)

갓 구운 스콘, 달콤한 홈메이드 페이스트리, 품격 있는 샌드위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티를 맛볼 수 있다. 제네바의 호텔 당글르테르(Hotel d'Angleterre)에서는 전통적인 애프터눈 티가 제대로 된 무대를 만난다. 주변 환경 역시 독특한 체험을 선사해 준다.

10. 칼튼 호텔(Carlton Hotel), 생모리츠(St. Moritz)

엔가딘(Engadin) 산악 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애프터눈 티다. 매일 오후 1 시부터 6 시까지, 생모리츠 칼튼 호텔의 벽난로 앞에서, 혹은 화창한 야외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산세의 위엄한 파노라마 자체도 잊지 못할 풍경이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